

스페인 사라고사, 필라(Pillar)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스페인 아라곤의 사라고사, 필라 (Pillar) 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본당주최 두번째의 성지순례인 스페인과 프랑스 여행이었다. 프랑스 루르드에서 밤늦도록 십자가의 길 그리고 촛불 행렬에 참가한 후 다음날 이른 새벽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향했다. 버스로 서너 시간 달려 높은 산맥을 넘어 가는 도중 멀미로 고생하는 교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지순례 9일째의 마지막날 일정이어서 아쉬움과 피곤함이 겹쳐왔지만 새로운 성지를 찾아가는 기대감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성당입구는 순례객들의 발길로 뚫렸는데 넓은 입구 광장에서 보는 대성당의 모습은 웅장해 보였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성당을 참배하고는 놀랍도록 오랜 역사와 규모에 감탄하며 돌아오던 중 에브로강 다리에서 강물에 비친 대성당의 준수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였다.

가톨릭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대성당에는 전설이 살아있었다. 서기 40년경 당시 스페인에서 선교중이던 예수님의 제자 바오로가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 처해있던 중 기도속에 성모님이 나타났다. 성모님은 대리석기둥을 주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하셨고, 여기에 바오로가 작은 교회를 세웠다. 그후 이곳은 스페인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도시중의 하나가 되었고 이작은 교회는 수세기 동안 재건축으로 여러번 변천되면서 1686년에 이르러 소 프란치스코 에레라의 설계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Pillar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이 되었고 역사상 마리아에게 헌정된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이성당에는 현재 마리아 형상이 새겨진 대리석 기둥이 중앙 제대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또한 1937년 스페인 내전당시 폭격에 의한 두개의 불발된 폭탄이 그대로 남아있어 순례자들에게 전시되고 있다.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라면 사라고사의 수세기에 걸친 여러 민족간의 전쟁으로 인한 침략과 점령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해지를 무렵 강변에 비친 노을을 배경으로 좀더 멋진 대성당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싶었지만 오후의 몬세랫 기도원 방문과 내일 아침의 귀국길에 마음이 바빠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에브로강에 비친 필라의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제대

사진/글 변태용 요셉
Canon 5DSR, 1/125 f/8, 58mm, ISO-200

연중
제 7 주일
2023년
02월 19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 (한국어/ 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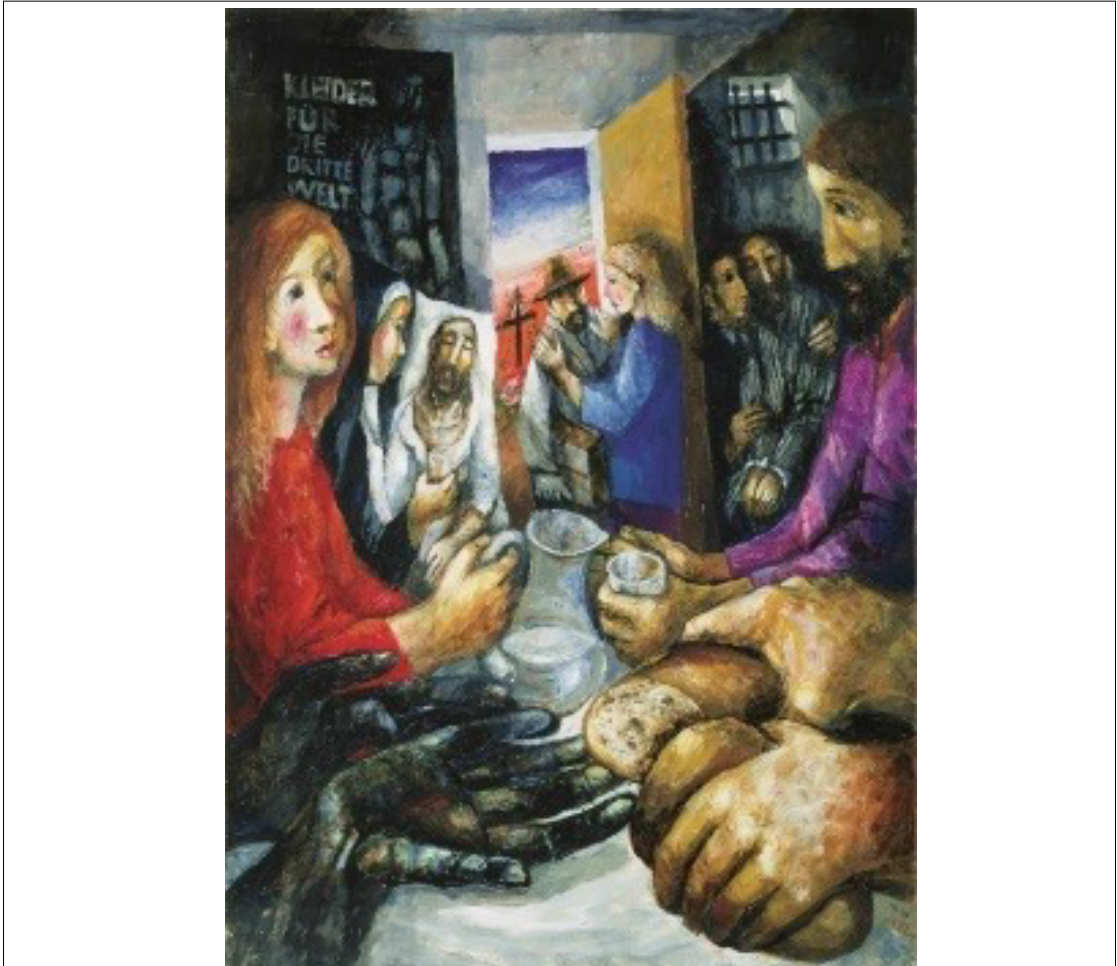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거 퀴더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레위기19,1-2.17-18
- # 화답송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3,16-23
- # 복음 환호송 1요한 2,5 참조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 복음 마태오 5,38-48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 성가 입당 21 봉헌 217 성체 162 파견 77

성당 소식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기준 - 이명호(비비안나)
- 유혜자(젼마) - 이요한
- 민병애(막달레나), 민병희 - 민규란(엘리자벳)
- 오희석(로스리아) - 진윤식(루시아)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정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박재영(요아킴) - 하연승(요한)
- 김삼식(베드로) - 가족
- 김선정(세실리아) - 가족
- 최현지(안토니아) - 김세현(스텔라), 김민주(이스베리가) 한상철(빈센치오)

- 김효근(다미아노)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이 Anderson (지우) 첫돌 축하 - 가족
- 일치의 모후 Pr. - 한상철(빈센치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8명)..... \$1,517
- 2차 헌금 (유틸리티) \$456
- 교무금..... \$1,300

- 양영길(1-2) 오현주(1-2) 김동근(1-6) 김현걸(1-2)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박화성(헬레나) 락 율리안나
- 방진숙(데레사)

✿ Diocesan Three Day Lanten Mission

메타천 교구 사순절 3일 미션

- 축복의 성사를 통해 3일간 진행되는 예수님의 만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 6일(월), 7일(화), 8일(수) 오후 6시 30분
3월 8일(수) (체키오 주교님 미사 7시 30분)
- 장소: 메타천 주교좌 St. Francis of Assisi 대성당

✿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만 14세 이상은 금육재를 지킨다.
- St. Patrick's Day(3/17, 금)에는 금육재의 의무가 관면된다.

✿ 2차 헌금

- 3월 12일: 유틸리티
- ✿ 2023년 2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2월 22일 오전 9시 영어 미사 (성당)
- 2월 22일 오후 6시 Prayer Services & Distribution Ash (성당)
- 2월 22일 저녁 8시 한국어 미사 (성당)

✿ 성지 가지 수거

- 오는 2월 22일(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성지가지는 2월 19일(주일) 까지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동안 주일 미사 시작 30분 전인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2023 Bishop's Annual Appeal

-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신부님과 첫 사목회의를 개최하오니 사목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로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노스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소회의실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23년 2차 정기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Rosary Altar Society 주관 Gertrude Hawk 캔디

- 캔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당 입구에 비치된 주문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캔디 판매 모든 수익금은 본당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주문 마감 및 문의: 2월 19일(주일), 사무실 (732-356-1037)

- ✿ 유스그룹 12학년에 재학중인 추해웅(어스틴) 학생이 메타천 교구청으로부터 St. Timothy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t. Timothy 상은 뛰어난 리더쉽과 봉사활동을 보여준 고등학생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말씀의전례

✿ 제 1독서 레위기19,1-2.17-18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3,16-2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태오 5,38-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마태 5, 41)

바오로말론렌츠

묵상도움글

대전교구 이승현 대건안드레아 신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동태 복수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오른뺨을 맞았을 때, 똑같이 오른뺨만 때릴까요? 더 심하게 갚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아니라 받은 만큼만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다른 뺨을 대주라 하십니다. 악에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원수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 그렇다면 폭력과 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자동차의 앞, 뒷부분을 강하게 만들던 때와는 달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드러운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강하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폭력에 그대로 갚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강하게 부딪히면, 둘 다 심하게 망가지거나, 둘 중의 하나는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폭력과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따뜻함과 부드러움, 주님의 온유함과 사랑입니다.

•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자비하신 주님께 용서할 수 있는 은총과 자비를 청했으면 합니다.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관계 안에서 갈등을 빚고 어려움에 있는 나의 가족이나 이웃을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2. 원수를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